

국제법(국제통상)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과 B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며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다. A국은 기후변화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즉, 승용차가 1km 주행하는 동안 200g (20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US\$ 1,000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400g/km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US\$ 500의 구매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0g/km 이상인 대형 승용차를 주로 A국에 수출하는 B국은 A국의 조치가 WTO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A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A국 '조치'가 GATT 협정에 위반되는지를 논하시오. (30점)
- 2) A국 '조치'가 GATT 협정상 일반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A국 국적의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특별보고관 X는 B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던 중 B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X는 인터뷰에서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B국의 두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B국의 두 기업의 대표이사들은 X의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국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해당 특별보고관의 지위를 확인하고 B국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각서를 보냈다. 그러나 B국 법원은 X가 주권기관이나 전임외교관이 아니며 단지 무급의 비전업 정보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X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하였다. A국과 B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X가 B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20점)
- 2) B국 법원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제 3 문. 국제연합헌장 제33조 제1항에 제시된 '중재' (arbitration)와 '사법적 해결' (judicial settlement)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국제연합헌장 제33조 제1항

1. The parties to any dispute, the continuance of which is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all, first of all, seek a solution by negotiation, i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 or other peaceful means of their own choice.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